섬을 배우고 섬에서 즐긴다

19~22일 신안 우이·도초·흑산도서 '신안 국제 문페스타'

홍어장수 문순득 일대기 기리는 섬 문화예술 여행형 축제

놀면서 배우는 길위의 학교 '로드스꼴라' 다양한 프로그램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이하 문페스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신안군 우이도, 도초도, 흑산도 등에서 열린다.

지난 1801년 흑산도에서 홍어를 사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 조선 역사상 가장 긴 표류 여정을 남긴 신안 우이도 출신 문순득(1777~1847)의 생애를 기리는 축제다.

극단 갯돌과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섬과 바다, 사람과 예술을 잇는 섬 문화 축제로서 섬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직접 참여해 섬을 배우고 이동하며 경험하는 '섬 로드스꼴라' 프로그램이다. '로드스꼴라(Road Scholar)'는 '놀면서 배우는 길 위의 학교'라는 의미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025 신안문페스타'의 로드스꼴라에 사전 신청한 여행자들은 3박 4일 동안 우이도, 도초도, 흑산도를 차례로 탐방하며 각 섬의 역사·생태·문화를 배우고 지역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자들에게 길동무가 되어줄 전문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윤선 서해안포럼 이사장, 이재근 신안군 학예사, 이영일 흑산도 자산어보 마을학교 교장이 동행해 섬의 역사, 민속, 문화, 생태 등 다양한 해설과 안내를 제공한다.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 포스터.

또한 길 위에서는 성악가, 무용가, 연주가의 즉흥 공연으로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선사한다.

여정은 20일 문순득의 고향 우이도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문순득 생가를 찾아 추모의례에 참여하고, 성황당터, 정약전 적거지, 돌담길, 우이도 선착장 등을 걸으며 섬의 옛 풍경과 조우한다.

다음 코스는 도초도로 이동해 화도 선착장과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 수국공원, 고란리 석장승 등 도초도의 섬 생활과 문화유산을 체험한다. 특히 '섬 산다이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섬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직접 경험한다.

축제의 마지막 코스인 흑산도에서는 진리당숲, 흑산성당, 박득순 미술관, 철새박물관을 차례로 여행한 뒤, 문페스타 본 행사에 참여한다.

축제의 이틀날인 21일 밤 흑산도 예리항 선착장은 파도소리를 배경 삼아 펼치는 환상적인 예술 무대가 된다.

흑산도 출신인 정태연 셰프의 '홍어 해체쇼', 극단 갯돌의 대표작 마당극 '문순득 표류기', 영화 '자산어보' 야외 상영, 최성환 교수의 인문 토크쇼 등 섬과 역사를 잇는 콘텐츠들이 이어진다.

또한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흑산 콘서트도 열린다. 마카오 잉치무용단, 가객 정용주, 소프라노 문안나, 서커스 이진규, 선경진 댄스스포츠단, 지전춤 강은영 명인이 무대에 올라 섬의 밤을 문화예술로 수놓는다.

축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흑산도 출신 시인 이주빈의 토크쇼가 열리고, 참가자들은 흑산도의 풍경과 내면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은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풀배 띄우기 소원제'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19일 암태초등학교에서는 '2025 신안국제문페스타'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워크숍 문순득 탐험대'가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문순득국제프로젝트연합 회원국인 마카오의 잉치무용단이 함께하며, 문순득의 표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다를 배우고 예술로 탐험하며 영어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섬 어린이들이 조선 최초의 세계인 문순득의 이야기를 영어로 접하며 상상력과 언어 실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상동들노래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체험에 앞서 김산 무안군수와 사진을 찍고 있다.

무안군, '상동 들노래'와 함께하는 모내기 성료

원생 등 130여명 참여 모내기 체험

무안군은 지난 13일 무안 상동들노래보존회(대표 서민경)가 주관하고 군이 후원한 '무안 상동들노래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안 상동들노래'는 무안읍 용월리 상동마을 농민들이 예부터 모내기와 논매기 작업 중 부르던 전통 노동요로, 2006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 제41호로 지정되어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악유치원과 국공립 푸른솔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마을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 상동들노래 시연과 모내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 들노래를 부르며 모를 심는 이색 체험은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며 호응을 얻었다.

허재경 무안군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의 전통 농경문화를 알리고, 상동 들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전통 체험을 통해 무안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키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 숲숲영화제 출품작 공모…환경·생태 주제

9월 26~28일 도갑사 등서 개최

영암군이 청년마을 '달빛포레스트'에서 '제2회 영암 숲숲환경영화제'에 상영할 작품을 공모한다.

영화제는 9월 26~28일 군서면 도갑사와 학산면 독천리에서 '다시 생동하는 힘'을 주제로 열리며 자연의 회복력과 환경 보호 의미를 조명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전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회복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환경·생태·자연·동물·지구·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극,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 등 장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다음달 7일까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고 2025년 8월 1일까지 완성되는 영화여야 한다.

달빛포레스트는 지난해 영암읍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지 2번 창고에서 '폐허로 남은 공간'을 주제로 제1회 영암 숲숲 환경영화제를 개최했다.

달빛포레스트는 2024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 지역 생태환경 자원으로 문화 기획, 일거리 실험, 청년 커뮤니티 공간 '비움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광군 터미널 상권 살리기…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43개 점포 상품권 가맹점 등 혜택

영광군이 침체한 영광터미널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나섰다.

영광군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영광터미널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말 '영광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와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다. 이 일대에는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영광터미널전통시장 모습.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일자리 기업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

다음달 9일까지 신청 접수

해남군이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은 오는 다음달 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증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증가, 300인 이상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고용환경 개선금 14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한도 우대(2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우대(5억원) ▲이자지원 금리 우대(1.4 ~ 2.5%)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3년)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군정 알림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